

인류의 위대한 힘을 보여준 에이즈와의 25년

글 : 최강원 · 본회 회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

지난 6월 5일은 오늘날 에이즈로 불리는 정체불명의 질병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지 25년이 되는 날이다.

2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과거의 어떤 다른 질병에서도 보지 못 하였던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에이즈의 무서운 확산 속도이다. 그 짧은 기간에 에이즈는 전 세계로 퍼져 나가 이미 2500만의 희생자를 내었고, 생존한 4000만의 감염자는 고통과 불안에 찬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제 에이즈는 인류 최대의 재앙이며, 현대의 페스트로 불리고 있다. 에이즈의 범세계적 유행은 의학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 경제적 기초를 파괴하고 많은 나라의 미래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에이즈의 도전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적절하게 대처해 왔는가?

사람들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현대의학이 그까짓 에이즈라는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냐고 의아해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한 어떤 질병에서도 에이즈에서와 같은 의학적 성공을 거둔 적은 없었다. 불과 2년 만에 원인 병원체인 HIV를 발견하고, 3년 만에 정확한 진단법을 개발하며, 14년 만에 생명과 건강을 되살리는 치료제(바록 완치에는 못 미치지만)를 발명한 질병이 있었던가? 불과 1년도 안되어



감염경로를 알아내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예방법을 알아낸 다른 질병이 있었던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러 전염병들은 대부분이 수천 년 혹은 수만 년 이상 인류와 함께 있었고, 병의 원인을 발견 하는데 수십 세기가 걸렸으며, 치료는 불과 수십 년 전이야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한 번쯤 상기해 보면, 에이즈야말로 현대 의학과 과학의 위대한 힘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된다.

의학적인 면을 떠나서 보더라도, 이 질병의 도전을 분쇄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역사상 유례가 없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UN은 에이즈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을 주도 하였으며, UNAIDS를 통한 노력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 뿐 아니라 에이즈 퇴치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치적 리더십을 위하여 2001년 유엔 특별총회에서 189개국 지도자가 채택한 에이즈 퇴치를 위한 선언은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이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의 중간 평가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희망적인 성과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5년 동안의 주요 지표의 변화를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개도국에서 에이즈 퇴치를 위하여 사용된 공적 기금은 83억 US \$로서 무려 30배나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또 주요 지표의 하나인 개발도상국 감염자 중 치료제 사용자의 숫자도 24만에서 130만으로 5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다. 물론 이것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전체의 20%에 지나지 않고, 목표인 50%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감염된 임신부의 9%가 태

아 감염 예방을 위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인 발전이다.

젊은이에서 HIV 유병률이나 영아의 수직 감염률이 저하된 것, 에이즈에

대한 바른 지식과 콘돔 사용률이 증가한 것 등 긍정적인 발전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것은 많은 에이즈 유행지역에서 새로운 감염 발생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옛 동구권이나 남부 아프리카처럼 아직도 증가세를 유지하여 낙관을 불허하는 지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상의 여러 지표가 의미하는 것은 지구상의 여러 나라가 합심 협력하여 에이즈 퇴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에이즈의 범세계적 유행을 저지하고 나아가서는 정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다. 비록 감염자의 절대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는 에이즈와의 전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을 것이며, 인류의 모든 의지와 자원 및 지혜를 모은다면 희망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1985년에 첫 감염자가 확인된 이래, 작년까지 3,829명이 확인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에이즈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비록 감염자의 절대수가 적고, 유행률도 전 세계에서 매우 낮은 편이긴 하지만 평균 증가율

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으며, 지하에 숨어 드러나지 않은 감염자의 비율이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또 예방 노력에 있어서도 예방 교육(초등학교 때부터), 홍보 노력 등에 있어서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강제 보고, 등록을 통한 관리제도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후진적 제도로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른 한편으로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항바이러스제 병합요법을 포함한 치료 혜택은 선진국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우리나라도 이제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교육의 강화, 적극적인(언론 매체를 통한)홍보, 감염자의 인권 보장(강제 등록 조항의 폐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차별의 철폐, 사회 지도층(정치 및 재계 지도자 포함)의 호응과 선도가 필요하다.

방 교육의 강화, 적극적인(언론 매체를 통한)홍보, 감염자의 인권 보장(강제 등록 조항의 폐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차별의 철폐, 사회 지도층(정치 및 재계 지도자 포함)의 호응과 선도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한 종교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부족한 점이 해결된다면 우리나라의 에이즈 예방 퇴치 노력은 아마도 전세계적인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에이즈 정복을 위한 통일 전선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에이즈에 대한 막연하고 근거 없는 편견이다. 질병에는 어떤 도덕적 판단도 끼어들 틈이 없으며, 질병은 어떤 것이든 그저 질병일 뿐이고 우리는 합심하여 그것을 퇴치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매우 어렵기는 하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편견이 감염자의 인권, 복지문제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에이즈 예방 및 퇴치 노력을 방해하는 주요 장애물이다.

우리 사회가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에이즈 퇴치에 성공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한다.